

## 기후위기, 날씨 빅데이터에서 답을 찾다

- 기상청, 해양경찰청과 손잡고 '2023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 본선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함께 8월 9일(수), '2023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콘테스트)' 본선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과 해양안전의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을 활용한 지면 온도 산출 기술 개발과, 연안 정박지에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에 따른 선박 닻 끌림 예측(해양경찰청 수요 반영)이 과제였다.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 청년층으로 구성된 총 49팀이 공모작을 제출했으며, 7월 12일(수) 1차(예선) 심사를 거쳐 2차(본선) 심사에 진출한 분야별 10팀(총 20팀)이 경쟁을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지면 온도 산출 기술 개발로 폭염과 결빙 등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해양 기상 예보 모델에 적용한 닻 끌림 예측으로 선박 사고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자는 기상청과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포상과 더불어 '빅매칭 캠프'와 '제11회 범정부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추천되어 취업 연계 및 창업을 지원받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한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상기후 융합데이터가 정부 혁신과 업무 개선에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에서 개발 중인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의 닻 끌림 자동탐지

기술에 기상 빅데이터 정보가 추가될 경우, 선박 닻 끌림 조기탐지 기술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전했다.

- 붙임 1. ‘2023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 결과  
 2. 행사 사진

담당 부서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김영동 (042-481-7490)
		담당자	사무관	오태석 (042-481-7484)
<공동>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책임자	과 장	허학선 (032-835-2085)
		담당자	사무관	박성용 (032-835-2185)

□ **공모 분야별 시상 결과**

○ **생활안전 분야**(주제: 기상에 따른 지면온도 산출기술 개발)

구분	팀명(분석내용)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b>U-RECA</b> (Extratree Ensemble Weight를 활용)
우수상 (기상청장상)	<b>아침기상</b> (Iterative Imputer의 Bayesian Ridge 보간방법을 활용한 catboost 예측 모델)
장려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	<b>DCP</b> (계절별 특징을 반영한 변수선택과 지연변수, 시간변수를 활용한 stacking모델 )
	<b>dap</b> (여름, 겨울철 체감기온과 이동평균을 활용한 예측 모델링)

○ **해양안전 분야**(주제: 기상에 따른 선박 닻 끌림 예측)

구분	팀명(분석내용)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b>승리호</b> (선박구역, 선박 이동거리, 선박속도, 평균지점거리, 이전 시점과의 최대거리 등의 다양한 파생변수 활용)
우수상(기상청장상) 특별상(해양경찰청장상)	<b>보리새싹</b> (레이블 불균형으로 인해 이진분류 문제가 아닌 이상 징후를 사전탐지하기 위해 Anomaly Detection 활용)
장려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	<b>뚝딱공학</b> (선박위치와 선회중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정박지별 선회반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파생변수로 사용 및 풍압력, 유압력을 활용)
	<b>부산의날씨는오늘도맑음</b> (선형보간법과, Lightgbm을 활용한 결측치 보간)



< 단체사진 >